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정님(논나)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1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연옥.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기억하고 묵상하며 죽음에 대해 그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기로 고통 받고 있는 영혼들이 정화되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사와 기도를 드리는 위령 성월이며, 또한 제가 2006년 9월에 교육받고 11월에 호스피스 봉사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라 그 어느 달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봉사하는 첫날 선배님을 따라 병실에 들어가 주뻗뻗 자꾸만 뒤로 숨어드는 나에게 말이라도 걸까 봐 마음 졸이다가 기도를 시작하면 얼른 따라 하였던 1~2개월 동안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익히며 열심히 하다 보니 활동한 지도 벌써 12년 차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지속해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이 한몫을 하였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긍심, 사명감으로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은 나 스스로 했지만 봉사하는 기쁨은 배가 됨에 더없이 좋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그래서 봉사하는 특히 호스피스 봉사는 더더욱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며 자신을 곧추 세울 수 있는 생의 전환점이 되어 감동과 사랑과 희망이 함께 하는 곳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우분이 있다면 봉사하게 된 지 3~4년 정도 되든 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70대 중반의 남자로 젊었을 때는 외모와 풍채가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보호자에게 다가가 어깨라도 토닥여 줄 수 있는 노련함으로 손이라도 잡아 주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봉사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고 오히려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던 것이 마음 한편에 아픈 기억으로 자리합니다. 약 7~8년 전에 60대인 유방암 환우분은 가정사로 속앓이를 하며 지내게 되었고 몸이 아프고 나서 친구가 보고 싶다고 하여 수소문 끝에 소식이 닿아 서로가 그리워했던 만큼 애뜻함으로 마주한 친구, 마지막 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 줄 거라며 친구는 가족들의 양해를 얻어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의 진한 우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지만 얼마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혼인 딸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모정, 뇌종양으로 어린 아이를 보낸 젊은 부부, 흐뭇한 예화를 들자면 불심이 크신 분이었던 어느 자매님은 어머니를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 치료, 통증 완화, 돌봄을 받게 하여 그 어머니께서 영면하신 후 가족 모두 천주교 세례를 받고 지금은 호스피스 자원봉사 팀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남편분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늘나

라에 보내고서 일 년 정도 지난 후 호스피스 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로에 노부부가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여 귀감이 되는 모습에서 부족한 나 자신을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도록 계기를 주지 않나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보게 하는 대단하신 분들.

2020년은 코로나19로 온 세계 및 우리나라 전국이 몸살을 앓는 중이라 활동이나 행사도 거의 못 하고 많이 하지 못했지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입실하면 발 마사지, 말벗, 성가나 성경 읽어주기, 기도 등(영적 돌봄), 누룽지 드리기, 요일 요법 참여, 생일 이벤트 도움 등 그리고 연도, 문상, 장례미사는 물론 장지까지도 동행, 사별 가족 모임, 돌봄 등 조력자 역할을 잘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수녀님, 팀장님, 복지사님이

한마음이 되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임하게 됨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님 각자가 택한 길이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자기만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어 서서 왔던 길을 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희. 노. 애. 락이 녹아 만들어진 길 위에서 또 긴 여정의 길에서 만나 모두가 한사람, 한사람 소중한 존재 의미로 가치 있는 삶과 성찰 할 수 있는 나 자신과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꼭 필요한 인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하반기 신입회원 명단

▶ 일반회원

- 성빈센트병원

강지유, 김미경, 신지연, 이충권, 조상례, 조원주, 황인영

- 성가롤로병원

St.이중순, 김도은, 박민정, 박선삼, 박세리, 오수연, 정여원, 조은별, 한삼남

- 은평성모병원

강한나, 고미리, 김보람, 김영은, 김혜선, 나민희, 박수원, 송형주, 윤수연, 이지영, 한소영